

민주 “선거인단 모아라” 캠프 비상

예상밖 등록 저조...참여 독려 나서 권리당원 많은 호남 영향력 커질듯

민주통합당의 대선후보 경선 흥행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당은 물론이고 각 후보 진영도 선거인단 등록 확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선거인단 모집 6일째인 13일 오후 5시30분 현재 선거인단 등록자수는 12만3061명이다. 이는 지난 1·15 전당대회 선거인단 모집 당시 5일 만에 17만명(최종 등록 64만3353명)을 넘어선 것과 비교하면 하루 평균 2만명 수준에 불과한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다.

때문에 이해한 대표는 지난 10일 한 라디오에 출연, 선거인단 목표를 당초 200만명에서 100만명 수준으로 하향조정했다. 오는 17일 원내·외 지역위원장 연석회의를 소집, 선거인단 모집을 독려하는 한편으로 연석회의에 앞서 광화문 또는 여의도 등 직장인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경선 후보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리 홍보전을 벌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참여 열기가 식으면서 국민경선이 조직선거로 흐를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최대한 많은 인원을 ‘우군’으로 끌어들이는 쪽이 경선에서 유리해진다.

특히 자동으로 투표권이 부여되는 권리당원 수가 많고 대다수 주민이 민주당 지지층인 호남이 이번 경선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각 캠프는 다

양한 매체를 통해 후보 홍보에 나서 등 선거인단 등록을 이끌어내기 위해 애쓰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유일 후보인 박준영 후보는 이날 ‘제주도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내일이면 제주지역 선거인단 모집이 마감된다”며 “이번 선거인단 모집에 임하며 일체의 동원을 배제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경선원칙을 지키겠다고 천명했다.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지를 바탕으로 깨끗한 경선에 앞장서겠다”고 호소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오전 선거대책 회의에서 “민주당 경선이 국민으로부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며 “선거인단 등록도 위기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서울 명동 거리로 나가 유권자들의 선거인단 참여를 호소하기 위해 ‘플래시 몹’ 캠페인을 벌이고 직접 선거인단등록 안내서를 돌렸다.

손학규 후보 캠프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제주와 울산지역 선거인단모집은 내일(14일)이 마감인데 큰일”이라며 “제주는 첫 경선지역이라는 의미가 있는 만큼, 초반 투표 결과가 전체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선거인단 모집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후보는 판다가 주안공으로 등장하는 이집트 치즈회사인 CF영상을 이용해 ‘판다 학구’ 시리즈를 만드는 등 젊은 층의 선거인단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김두관 후보도 최근 자신의 삶과 정치역정을 담은 홍보 애니메이션 ‘서민의 눈을 보면 눈물이 보인다’를 유튜브에 올렸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기본에 충실하면서 제주와 울산에서 승리한다는 각오로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있다”며 “특히 무소속 단체장들의 모임이나 전국에 자생적으로 생긴 조직과 접촉해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이들이 국민경선 때 큰 힘을 발휘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후보 캠프인 ‘내일을 여는 친구들’은 최재성 전략기획본부장의 진두지휘 아래 각 직능단체들과 접촉하며 선거인단 모집에 주력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당 4·11 총선 공천헌금 파문의 연루자들에 대해 검찰이 이번 주 사법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파문으로 직격탄을 맞은 친박계 진영에서 다양한 출구전략이 모색되고 있다.

우선 사태에 대한 무한책임 차원에서 대국민사과가 거론된다.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13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 뿐 아니라 저를 포함한 모든 비대위원에 상당한 도덕적 책임이 있다. 사과 같은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과 후 정국 반전 카드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나 공천헌금 정국을 정

면들과할 수 있는 고강도의 인적·정책 쇄신 조치가 따라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달리지 않는다.

박근혜 캠프 측 관계자는 “이번에 박 전 위원장의 고경 지지층에 대해 또 다른 10%를 더 없앴다는 각오로 매우 강도높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대통합을 통해 분위기를 일신하면서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새누리당 지지자들 중 박 전 위원장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는 20~25%를 끌어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선캠프의 홍사덕 공동선대위원장은 전날 정권 재창출을 위한 비박

계 포용론을 제시하며 당 화합론을 폈다. 비박 포용 여부는 오는 20일 경선 이후 대선 캠프를 꾸리는 과정에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정현 최고위원은 이날 공천헌금 수사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한 질문에 “이런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박 전 위원장을 포함한 새누리당은 단호하고 분명한 부정부패 근절 대책들을 많이 내놓을 것”이라며 “정치권의 비리 척결이나 특히 검찰·경찰·국세청 등을 포함한 사정기관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대대적인, 혁명적인 개혁들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부동산 투기와 논문 표절, 아들 병역 비리 의혹 등이 제기된 새누리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아 정치권에 서는 임명 강행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오기 인사”라며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통합당 손학규 대선 후보가 13일 광주 서구 농성동의 한 식당에서 열린 광주·전남교수단 정책간담회에서 지역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손학규 “차기 정권은 민생정부”

광주·전남지역 교수단과 정책간담회...해양수산부 부활 약속

민주통합당 손학규 대선 경선 후보는 13일 “차기 정권의 이름은 ‘민생정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 시내 한 식당에서 광주·전남지역 교수단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국민의 삶이 어렵고 서민이 죽을 기경”이라며 “세종대왕께서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고, 밥이 백성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니 차기 정권은 국민을 위주로, 국민을 윤락하게 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만약 지금 거론되는 여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광주 정신은 어디로 갈 것이며, 우리의 삶은 어떤 지 걱정”이라며 “따라서 이제 정권 교체는 우리의 사명이 됐다”고 말했다.

손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 어려운 때에 진보와 성장, 복지와 일자리를 함께 이뤄내는 준비된 대통령, 유능한 진보 대통령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손 후보는 이 자리에서 지역 공약

도 제시했다. 광주는 광산업 클러스터 조성·수소에너지 사업 육성·광주 연구개발(R&D) 특구 조성 등을 통해 서남권 거점 과학도시로 육성하고, 전남은 친환경 및 첨단 농업 지원을 확대해 우리나라 식량 안보의 전초기지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호남고속철도의 총복·복도 구간 준공 시기를 앞당기고 광주~목포 구간 노선은 무안공항을 경유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병하 광주 과학

기술원 부원장, 이홍길 전남대 교수, 장하경 광주대 교수 등 광주·전남지역 교수단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해양수산부 부활·의료 적정 수가 제 실현·노인복지·교육개혁 등의 정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손 후보는 “해양수산부 부활을 통해 항만·해양자원·수산업을 다시 살릴 것”이라며 “적정 의료를 다시 살릴 것”이라며 “적정 의료가 개선했을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의료 체계 정상화를 통해 국민 주치의 제도도 펼쳐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손학규 후보를 지지하는 광주·전남지역 교수들은 오는 16일 ‘대통령을 만드는 손’을 발족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대통령, 현병철 인권위원장 임명 강행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야기된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임명했다.

박정화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늘자로 현

위원장의 임명을 재가했다”면서 “그 동안 제기된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현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가 라운지

이용섭, 원전안전위원장 청문회 발의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인 이용섭(광주 광산 을) 의원은 13일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 의원은 “고리 원전 1호기와 영광원전 6호기 고장 등으로 국민의 원전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고 국민 여론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는데도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잇따라 설계수명 연장과 재가동을 승인하고 있다”면서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의원 9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반 총장은 간담회 기조연설을 통해 2015년 MDG 8개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한국의 역할 강화를 당부할 계획이 다.

강기정 “與 공천헌금 축소 의구심”

민주통합당 강기정(광주 북구 갑) 최고위원은 13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의 정치자금법상 후원회 제도 손질 주장은 공천장사, 동공천에 대한 축소·은폐 시 도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영등포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동공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못해 노골적으로 축소·은폐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현 전 의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도 하지 않았고 급기야 돈 전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기문씨에 대한 사전수속영장에 대한 심문도 사흘씩 연기했다”며 “시간을 끌면서 입맛추기를 하는 과정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이낙연 ‘유엔 MDGs 달성’ 간담회

민주통합당 이낙연(담양·장성·함평·구례) 의원과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 포럼’은 1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 MDGs 달성을 위한 한국의 역할 제고’를 주제로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엔 반 사무총장과 유엔 MDGs 관계자들, 여·야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생모집

1 연수일정 (2012년 제9기)

- 개강일시 : 2012. 9. 7(금) 기초A반 9:30, 기초B반 19:00 심화A반 9:30, 심화B반 19:00
- 개강장소 :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2. 7. 16(월) ~ 2012. 8. 24(금)
- 수업기간 : 2012. 9. 7(금) ~ 2012. 12. 21(금) (총 90시간)
- 수강료 : ₩360,000

■ 모집인원 : 기초반 : A반, B반 각 30명
심화반 : A반, B반 (진급생과 편입생 약간명)

* 기초반 수업 정도의 실력이 인정되는 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편입 가능

■ 수업시간 : 매주 금요일, 토요일
 A 반 : 금, 토 오전 09:30~12:30
 B 반 : 금 야간 19:00~22:00 토 오후 14:00~17:00

■ 수료 후 특전

- 1,2단계 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발급 수료증 수여
- 2단계 수료시 한문지도사 자격증 2개 동시 취득 기회 부여
- ① (사)한국공립대학 평생교육원협의회장 발급 한문지도사(민간자격)
- ② 국가공인 기관장 발급 한문지도사(국가공인자격)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 급수 취득 기회 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한문학원 개설 가능
- 각급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추천

2 원서교부 및 접수처 (토, 일 공휴일 휴무)

- 전 화 : (062) 530-3873~3876
- 담당교수 : H.P 010-2611-1171, 011-9712-1378
- 광주은행 : 074-107-004114 (예금주 : 전남대 평생교육원)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임대&매매 수익성최상

① 키즈테마카페임대

- 각화동 홈플러스인근
- 뷔페,파티룸,뷰티샵등
- 면적 : 2,400㎡(725P)
- 주차 500대
- 보증금 3억/월1,980만

② 예식장 상설뷔페임대

- 돌잔치,각종행사전문점
- 면적 : 2,824㎡(854P)
- 주차 500대
- 보증금 4억/월2,420만

③ 도심형 생활주택 메디컬센터부지

- 961㎡(290P)
- m당 150만
- 150세대, 15층
- 14억 투자 = 수익11억

010-3666-4646

경매. 배우면서. 돈버실분

→ NPL / 특수물건만 취급
→ 20년 경매노하우 전수
→ 주1회 / 2시간 / 3개월 수료
→ 4분 한팀 / 회비 550만원

|주| 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0 3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 2번지
 E mail : csg5000@hanmail.net

못 받은 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